

문화예술 및 청소년교류협약서 作成

포천시, 중국 화이베이시와 '실질교류협약서' 체결

포천시는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화이베이시(淮北市)와 문화예술 및 청소년 교류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양 도시간에 보다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경제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왕방걸(王邦傑) 화이베이시 시위원회 서기와 지난 4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실질교류협약서에 서명했다.

'문화·예술 실질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포천시와 화이베이시는 매년 문화예술공연단을 상호 파견해 각종 교류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화이베이시는 오는 9월 23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에 자국의 유명미술작가 2명을 추천하고 포천시는 이 가운데 1명을 선정해 초청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10월 1~2일 포천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20여명 규모의 화이베이시 문화예술

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양 도시는 아울러 청소년 실질교류에 관한 합의서도 체결하고 매년 청소년을 상호 파견해 각종 교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올해는 포천시가 8월 중 개최하는 한·중·일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에 화이베이시에서 20명의 중학생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포천시가 청소년들을 중국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청소년 교류기간 중에는 양국의 문화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홈스테이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및 청소년 교류를 진행함에 있어 항공운임을 파견하는 도시가, 체재비는 초청하는 도시가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박운국 포천시장과 왕방걸 화이베이시 시위원회 서기는 이번 합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보다 확대된 분야에서 양 도시간 상호 교류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간 일정으로 방한한 화이베이시



박운국 포천시장은 지난 4일 오전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중국 안후이성 화이베이시 시위원회 왕방걸 서기와 문화예술 및 청소년 교류협약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다짐했다.

경제대표단은 관내 국제산업(주), 상용기계(주), 영진산업(주)을 방문하여 생산품목과 생산방식 및 유통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도 해 앞으로 양 도시간의 경제교류 협력의 희망을 갖게 했다.

특히 왕방걸 화이베이시 서기는 이번 방문에 대해 "방문목적은 100% 달성했다"며 "이번 방문성과에 대해 포천시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2

“백성은 임금의 하늘”

14세기 民本사상가 鄭道傳

정도전(1337~1398)은 조선왕조 건국의 이데올로그(Ideolog: 이 론가)요, 설계자였다.

그는 고려왕조에서 조선왕조로의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선양(禪讓)의 형식으로 성취시키는 쿠데타에 동참하고 이를 정당화했다. 그는 이태조(李太祖)와의 관계를 하고조(漢高祖)와 장량(張良)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한 고조가 장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량이 하고조를 이용했다고 취중에 토설하더라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말하자면 이태조의 힘을 빌려 정도전이 제 뜻을 편 작품이라는 말인 듯 싶다. 그렇다면 새 왕조의 창건을 통해서 정도전이 펼치려했던 뜻은 삼봉집(三峰集)을 통해서 소상히 알 수 있다.

시인혁명으로 탄생한 프랑스 공화국이 어떤 꿈을 안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인권선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탄생한 소비에트 국가의 설계도는 마르크스 레닌의 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것은 백년전이나 고작 2백년전의 일이다.

그러나 불교국가에서 유교국가로, 왕(王)씨의 왕조에서 이(李)씨의 왕조로의 전환은 2종의 혁명을 통해서 조선왕조가 창건된 것이다. 14세기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백여년전에 건국한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이나 통치설계도는 20세기에 등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장한 어느 신생국가 못지 않게 명문화하여 극명하게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 제시하고 있다. 오백년 사직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이 삼봉집에 기재한 것이다. 살펴보면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14세기말 이 지구상에서 이토록 뚜렷한 건국이념과 합리적인 통치철학을 명문으로 밝히면서 출범한 국가가 없다.

성리학(性理學)의 핵심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오상(五常)을 근본으로 하여 통치의 철학으로 삼은 것이다.

오늘의 시각에서도 주목을 끄는 것은 다음의 세가지다.

첫째, 민본(民本)사상이고 둘째, 재상(宰相)중심제 사상이고 셋째, 언로(言路)기능의 강화이다.

첫째, 백성(民), 나라(國), 임금(君)의 관계를 명쾌하게 하고 있다.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고 임금의

하늘인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임금을 대통령으로 바꾸어 놓기만 하면 현대 민주국가에 인용돼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상중심의 권력구조를 주장하였다. 임금은 세습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군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재상을 선택해 재상중심제로 정치를 제창하였다.

세 번째는 언관(言官)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간(臺諫:언관)은 임금의 귀와 눈이 되어 백관의 비행을 규찰 탄핵하고 임금의 결에서 임금의 잘못을 간하며 바로잡는 직분으로 직언(直言)할 수 있는 언로가 활짝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 민주국가에서도 본받을 만한 일이다.

정도전이 창건한 조선경국전은 참으로 값진 것이다. 서구의 르네상스(문예부흥)시대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1469~1527)는 당시의 뛰어난 정치사상가로 지칭된다. 정도전이나 마키아벨리는 다같이 현실주의적 정치사상가였다. 정도전의 군주론은 민본사상을 전개하였고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위한 비윤리적인 정치사상을 전개하였다. 정도전은 14세기 사람이요, 마키아벨리는 16세기 사람이요.

요사이 우리 것을 우습게 여기고 서양 것을 찬양하는 사람과 또한 서구인에게 14세기에 서양 하나 15세기, 16세기의 서양인조차도 정도전에 비길만큼 스케일이 큰 정치사상가가 있었는지 누가 가르쳐 주었으면 실다.

7,80년대 디스코 열풍의 핵

Boney M. 포천반월아트홀 내한공연



추억의 디스코음악을 연주하는 그룹 보니엠이 포천반월아트홀에서 7월17일 오후7시30분에 공연 무대를 마련한다. 초등학교생이상이 관람가능하며 전석 5만원이다.

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디스코 열풍을 몰고 온 그룹 보니엠이 포천에 온다.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인기 있는 명곡 10곡 중에 두 곡 (By the Rivers of Babylon / Mary's Boy Child)을 랭크한 이 그룹이 한국에서 8명의 뮤지션과 함께 내한해 최초 라이브 무대를 마련한다.

오리지널 리드 싱어 리즈 미첼이 이끄는 지상의 유일한 진짜 보니엠이 선보이는 라이브 무대의 뜨거운 열기와 추억의 시간 속에서 그때의 그 분위기를 생각하며 신나는 리듬에 다시 한 번 몸을 맡겨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니엠의 음악은 자메이카의 토속 음악인 레게 뮤직을 근간으로 당시 대세였던 디스코 댄스 리듬을 접목시킨 신선한 장르로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

다. 이들의 데뷔 싱글 'Daddy Cool'에 이어 최근 LG 싸이언 광고 음악으로 쓰인, 우리에게 친숙한 멜로디의 'Sunny'가 빅히트를 기록했고 'Ma Baker'가 뒤이어 영국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유라시아 전역은 물론 국내에서 더욱 큰 사랑을 받았던 'Rivers Of Babylon'과 'When A Child Is Born' 등의 발라드 넘버들도 우리들의 70년대의 추억을 장식하고 있는 곡들이다.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에 서게 되는 디스코 음악 최고의 그룹 보니엠 공연의 관람료는 전석 5만원이다.

초등학교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예매 및 공연문의는 포천반월아트홀 031)538-2938~40(www.bwart.net)로 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아름다운간판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간판은 문화라는 공감대 형성 토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문화관광도시 포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2005 대한민국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이 수상자와 광고협회 회원, 포천시와 시의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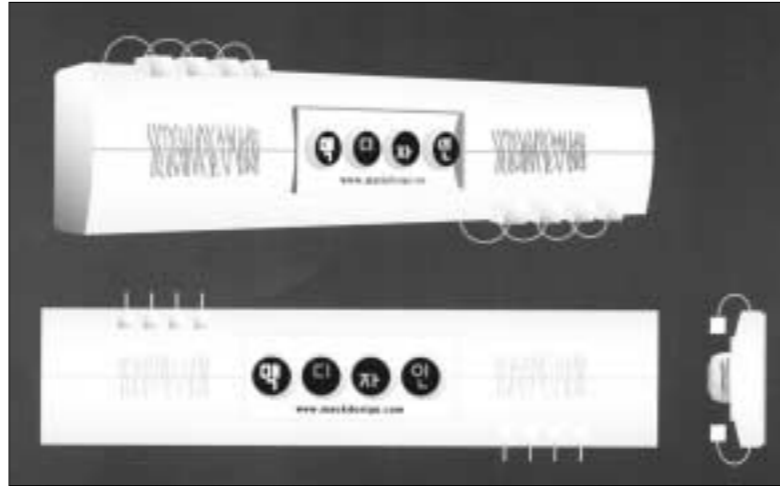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광고 문화"라는 주제로 포천시가 주최하고 한국옥외광고협회 포천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간판 디자인 창작 >기술처분 >아름다운 간판 >간판 카메라그랩 부문 등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국 12개 광역 시도에서 미술디자인 등을 전공하는 31개 대학 학생들과 광고전문가, 일반인 등 모두 230여점의 작품이 응모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전자정보화 시대에 디지털카메라가 일상화되는데 착안해 전국 최초로 국민 누구나 아름다운 간판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간판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대학교수들과 포천시 정책자문위원, 한국광고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이날 >대상 삼원기회 김경호 씨 >최우수상 경북대학 황혁환 씨와 >대진대학교 김희정 씨 >포천광고 이수형 씨 등 4명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84명이 입상했다.

한편 시상식에 이어 5일과 6일 이틀간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는 입상작품 전시회가 마련됐다.

지혜복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가 주최하고 한국옥외광고협회 포천시지회가 주관한 2005 대한민국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꼭디자인' (출품자 김경호, 삼원기회).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36)

포천의 선정비(抱川之善政碑)

'선정(善政)을 베푼 관원(官員)의 덕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을 선정비라고 한다. 또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라고도 한다.

영원히 잊지 못할 기념비라는 뜻이나 그 뜻이 더욱 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창한 이름의 비석에 비하여 뚜렷한 선정 내용이 기록된 비문이 없다는 점에서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뚜렷한 선정 내용을 남긴 선정비는 홍태윤(洪泰潤, 군수, 1878~), 영평군 소재)의 선정비인데 극심한 흉년이 들어 양곡을 방축하여 백성을 구제하고 세금을 감면하였다는 기록

이 남아 있었다 한다. 현존하는 선정비로는 일동면 화대리 운담사거리에는 군수 이재원(李濟元)의 선정비(재임기간 1868년~고종5년 5월~1873년~고종10년 3월)인데, '행군수이공제원 영세불망비 광서2년 병자5월'이라 명기되어 있다. 행군수(行郡守)란 군수직보다 높은 벼슬자격을 인내 낮은 직의 군수직을 명받았다는 뜻이다.

5년짜이나 길게 근무한데 비해 공적이나 선정 기록이 없음이 아쉽다. (화강의 비대 좌와 비신:142cmX48cmX23cm 크기) 선정비는 포천현감 이윤식(李允植)의 선정비로 건립 년도는 재임기간 중이던 1831년(순조 31

년)이다. 또 1906년까지 철원도호부 관인면 탄동2리에 세워진 선정비로 조준일(趙存一:1803년~1882년) 부사의 비이다.

1825년(순조 25년) 무과급제하고 1867년(고종 4년) 1월~1869년(고종 6년) 4월까지 철원 방어사를 역임하고 가산대부에 이르는 81세의 높은 품계의 고관이지만 관인 땅의 행적은 기록이 없으며 '부사조공존일영세불망비(府使趙公存一永世不忘碑)'란 비문이 있고 125cmX52cmX22cm 크기의 화강암으로 1868년(고종 5년) 재임 중 세웠다. 그밖에 23개의 선정비가 소재 했다.(이간, 이공양, 이성구, 이현, 송시길, 권위기, 현감

군수 등) 옛날(6·25 前)에는 포천을 자작리 비석거리(곡도면)에 선정비 비석들이 즐비했던 것이 생각난다. 지금은 군내면 구울리에서 신음으로 나오는 성황당 곁에 선정비가 출지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옛날에 재임 중에 세우는 선정비는 현인 사도에 대해 백성들의 염원과 감사의 뜻이 담겨 있지만 재임 기간이어서 그 모양새가 좋지 않다. 퇴임 후에 이르러 지난 재임동안의 선정과 공적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여 백성들의 자의(自慰)에 의해 선정비가 세워지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포천현이나 영평군은 대개 양주목사나 철원도호부 소속이었던 관계로 만약에 포천현감이 포천 현을 잘 다스리지 않고 못된 현감 노릇을 하는 경우 포천에 살던 전직 양반네들이 못된 현감을 가마에다 실어다가 삼급관가가 있는 남쪽 축석령 고개 넘어 양주방에다 내다 버렸다고 한다. 양반고을의 권위 있는 탐관오리 추방운동이었다고나 할까?

필자연락처 02-932-2434

제19회 반월문화제 우수작품 시상식

7월14일 오전10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오는 14일 오전10시 포천시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제19회 반월문화제 우수작품 전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제19회 반월문화제에 출품된 우수작품 수상자들을 유관기관장과의 합동 시상으로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하는 이번 전시회 및 시상식은 식전행사와 시상식, 다과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수상 대상자는 백일장 부문에 장원, 차상, 차하, 장려상 수상자 61명과 사생 부문 대상, 최우

수, 우수, 특선 등 53명, 서예부문 최우수, 우수, 특선 등 16명, 사진 부문 최우수, 우수, 특선 등 18명 등이다.

입선자에 대한 시상은 학원, 유치원생은 학원과 유치원에서 전수하고 초·중·고교생은 해당교에서, 일반인(대학생 포함)은 포천문화원에서 직접 수령하면 되며 수령일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지난 5월22일 포천문화원이 개최한 제19회 반월문화제 개회식.

일과시간에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문화원 (031-532-5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초대 漢詩

慶祝制憲節(경축제헌절)

- 西年解放復權旋 (유년해방복권선) - 유유년 해방으로 우리는 주권을 되찾아왔지만
- 太極旗揚旆壯美 (태극기양풍장미) - 태극기 게양하니 깃발 나무까지 그 모습 장미하고,
- 最初制始邦頒布 (최초제시방頒포) - 헌법을 처음 제정하고 나라에 민포하였는데,
- 遵守黎民治善政 (준수여민치선정) - 국민은 국법 준수하고 통치는 선정을 베풀어야 하며,

- 南北同胞散恨憐 (남북동포산한연) - 동포는 남북으로 이산되었으니 청원함이며,
- 無窮花發態紅嬌 (무궁화발태홍요) - 무궁화가 피었으니 저래는 붉고 곱도다,
- 屢次更新憲補填 (려차更新憲補填) - 몇 차례 갱신하면서 보전하였네,
- 歡呼慶日慢慵乾 (환호경일만용건) - 경축일 환호함에 하늘에 국기 마구 팔려가는구나,

朴東奎 永北老人大學 學長

초대 詩 포천 구절초

설움을 떨쳐내고 있다
찬서리 내리는 공아의 거리에서
가려진 꽃잎의 청초한 모습
모두다 추위를 그리워할 때.....

아름 마디 그리움과
아름 마디의 사랑
무서리 꽃잎 가리키는 절개
하늘에 흩날려
하이얀 속살 드러내고
한 폭은 향기 드러낼 때

비가 내린다
서러운 삶의 눈물인 양
오래된애에 다져 버려 되었다가
구월구일(음력)에 구월초가 되어
속부쟁이로 오해도 당했지만
포천 구월초는 선묘초라
흰꽃잎이 신선보다 희다 하얗게
한줄기에 향송이란 고고하게 피어나는
부는 바람에
재 풀 하나 가누지 못하는
너의 하얀 그리움이 더욱 애달픈
너는 정명 포천 구월초로다

김성진 마흔은학회원